

사회의 신성함
에밀 뒤르켐 (Émile Durkheim) :1858~1917

1. 개요

- 사회의 과학
- 사회적 사실(social fact)들이 개인적 사실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 개인을 사회 속에서, 사회를 통해서 설명해야 하며, 또한 그 사회 역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야만 한다.
- Auguste Conte 1798~1857
문명의 진화: 신학-철학-실증적/과학적 사고/religion of humanity
-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서구문명에서 생활방식을 영구히 변화시켰다.
- 기존: 농업, 사회계급, 지주귀족들, 군주들, 촌락과 도시의 긴밀한 공동체적 연결성, 그리스도교의 지배적인 진리
- 새로운 네 가지 패턴:
 - (1) 새로운 '계약적' 질서의 등장으로 개인적, 돈과 연결된 이해 관계 중심의 사회
 - (2) 새로운 이상들에 의해 도전: 신앙보다 이성, 내세보다 현세에서의 행복
 - (3) 개인들은 과거의 도덕 교사들, 가족, 마을, 교회로부터 연결이 끊어져 정당들과 대중운동들과 국가의 지시
 - (4) 자유, 자기성취의 기회 vs. 고독, 개인의 소외

2. 『사회분업론』

- 사회계약설을 부정하고, 역사 이전의 개인은 원래 집단 속에 존재했다. 가족, 씨족, 부족, 국가와 같은 집단 속에서 태어나고 생활
- 개별 자아도 사회구조(social framework)로부터 형성됨
- 소유물도 개인의 것이 아닌 공동체의 것
- 사회적 유대(social solidarity)가 일차적인 것
- 초기 공동체: 기계적 유대 by 외적 처벌, 집단 양심 collective conscience
- 현대 공동체: 유기적 유대 by 도덕적 자유와 책임, 도덕적 개인주의
- 뒤르켐은 도덕성과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고 믿음 : 사회-종교-도덕

3. 『사회학적 방법의 기준 1895』

- 귀납법: 증거(근거) 수집→비교, 분류→법칙 구성 (과학적 방법)
- 타일러와 프레이저를 비롯한 빅토리아 시대 인류학자들의 비교방법 comparative method와 분리하려는 시도: 표면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것으로 본질을 놓침. 과학이 아님, 미리 결정된 역사적 진보의 특 속에 배치하지 않음에 유의
- 사회학은 조급하게 수집한 많은 사례들에서가 아니라 더욱 치밀하게 검토한 소수의 사례로부터, 일반 법칙을 찾으려는 시도

- Normal : Pathological

정상성은 집단 내부에서 결정되며, 집단 밖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 사회 안에서의 기능 Function cf. 원인cause

『자살론 1895』 이기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4.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1912)

- 기본 요소들 (환원주의)
- 성sacred vs. 속profane (주의: 성은 선이고, 속은 악이라는 오해 금지)
- 성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 속은 개인의 영역 (주술은 개인의 영역)
- “종교는 신성한 사물들, 다시 말해서, 구별되고 금지된 것들과 관련된 믿음들과 관례들의 통합된 체계다.” (47)
- 종교적 관례들은 “그것들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는 도덕 공동체로 결속시켜준다.” (47)
- 현재 존재하는 가장 단순하나 사회체계와 연관된 종교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 (168) → 토테미즘
-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한 연구, 로버트슨 스미스, 프레이저, 프로이트
- 토템 동/식물들과 씨족의 동일시, 나와 동일시
- 토템이 아닌 동물들은 속된 것-죽이고 먹는 것이 허용
- 토템 동물은 신성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절대 금기, 그러나 희생제의에서는 희생시키고 먹는 경우
- 토템동물의 표상(emblem), 로고(logo)는 신성하고, 완벽한 표본이다.
- 씨족이 예식들을 위해 함께 모일 때, 나무나 돌 조각에 새겨진 토템 상징이 무대 중앙을 차지한다.





- 토템은 최고로 신성하며, 신성한 특성을 주변에 전달한다.
 - 토템원리 the totemic principle - 모든 씨족의 종교의 중심에 있는
 - 토템 배후에는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씨족 생활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세력을 지닌 비인격적인 힘(부족의 실제적 중심)이 있다. 사람들은 이 힘을 존중하고, 그 예식들을 지켜야하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끼고, 예식들을 통해 서로가 깊고 영구적인 충성으로 강하게 묶여 있음을 체험한다.
 - 사회는 “개인의 의식 안에, 개인의 의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토템원리가 어떻게든 항상 “우리 안에 침투하여 스스로를 조직해야 하는” 이유
 - 전체 공동체가 씨족이나 부족의 일반 예식들을 위해 모였을 때,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예식들에서 일어난다. 이런 위대하고 잊을 수 없는 예식들에서, 예배자들은 씨족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굳게 약속한다. 그들이 무척 흥분한 순간에, 노래하고 춤추는 거친 감정적 황홀경 속에서, 개인들은 격해진 무리들 속에서 자신들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사적인 자기들을 그 씨족의 단 하나의 위대한 자기 속으로 가라앉힌다. 그들은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위대하고 총체적인 영역 속으로 옮겨간다. 그들은 성스러움의 엄숙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활기찬 사회 환경들 한복판에서, 또한 이런 용솟음 자체로부터, 종교적인 생각이 태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18-219)
 - 제례의 목적은 씨족의식을 고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씨족의 한 부분임을 느끼게 하고, 속된 것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것
 - 토템원리의 확장: 영혼, 영혼 불멸, 조상신, 신, 최고신
 - 토템 의례의 세 가지 형태
 - (1) 부정적 의례-금기taboo, 금욕주의, 성과 속의 분리
 - (2) 긍정적 의례-성만찬, 희생제의, 신성한 교환sacred exchange, 씨족 생활의 갱신
 - (3) 속죄 의례-비극적 사건 이후, 죽음, 장례식에서 애도자들이 절망 속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자기 몸을 치는 문화, 공동체에 닥칠 수 있는 비탄, 재앙, 공포, 불안정 등의 어두운 경로를 통과해 갈 수 있게 하는 의례
 - belief vs. practice 종교는 의례가 사변적 교의보다 앞선다.
 - 의례는 사회적 단결의 진정한 원천
 - 종교와 사회의 관계
 - ✓ 사회가 결정하고, 종교는 결정되어지는 것
 - ✓ 사회가 통제하고, 종교는 반영한다.
 - ✓ 사회구조는 실제reality이고, 종교는 현상appearance
- 종교는 사회적 실재가 방출한, 용솟음effervescence

소외로서의 종교
Karl Marx (1818~1883)

- 유사종교로서의 Marxism : 저서, 교리체계와 권위 있는 해석, 의례, 신성한 장소들과 의식들, 선교사와 개종자들, 박해, 인간 삶 전체에 관한 총체적 비전
-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서 종교를 주제로 다룬 책은 없다. 산발적 논평
- Young Hegelians 청년 헤겔학과, 헤겔 좌파
- 1841년 박사논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 유물론의 진화: 존재론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경제적 유물론 『유대인 문제에 관해서 1843』 『헤겔 우파의 철학에 대한 비판 1843』 『경제학, 철학 수고 1844』 『독일이데올로기 1845』 『신성가족 1845』 『공산당선언 1848』 『자본 1867』
- 키워드: 역사, 유물론, 물질, 생활, 의식, 생산, 노동, 소외, 사적소유, 실천, 행동, 억압, 해방, 혁명, 공산주의, 잉여, 자본, 자본주의

1. 마르크스주의: 경제와 계급투쟁 이론

- 『공산당선언 1848』 with 엥겔스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 욕구와 욕망의 확장: 생존과 생활→생식, 가정 공동체→사회 구성
- 생산양식 mode of production의 발전, 노동의 분업division of labor, 생산관계 relations of production
- 역사의 변혁 (원시공산주의의 공동소유→사유재산) 생산관계의 변화
- 사유재산과 농업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 갈등을 조장, 계급 분리, 사회 불안
- 고대 노예제, 중세 농노제, (현대의 ‘노예제’), 장인과 낮은 도제, 귀족과 평민
- 부르주아지(상중류계급, 회사의 소유주와 관리자)-프롤레타리아(노동자)
- 공장, 도시, 노동자의 시간, 대량 생산, 부는 자본가에게, 빈익빈부익부
-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과도기, 계급분열과 사유재산의 악폐 청산
- 억압으로부터 해방

2. 유물론, 소외, 역사의 변증법

- 『독일이데올로기 1845』 “사변이 끝나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 헤겔: 의식이 생활을 결정한다. 마르크스: 생활이 의식을 결정한다. (Inversion)
- 헤겔-절대정신(하느님)
- ‘절대’는 그 스스로를 항상 더 깨닫고 더욱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은 물질적인 형태와 사건들 속에 그 스스로를 쏟아 넣음으로써 이루어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태는 결코 이 상태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

질적 형태는 항상 부적절하여, 정신에서 소외된다. 따라서 물질적 실체는 결코 절대에 이르지 못한다.

- 자연과 역사 속의 정신의 변증법(dialectic, the give and take): 물질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thesis, 정), 정신은 그에 대립된 사건(antithesis, 반)을 일으켜 그것을 교정하려고 한다. 그 때 이 둘 사이의 긴장은 세 번째 사건(synthesis, 합)에 의해 해결되어 양쪽의 요소들을 조화시킨다.
- 변증법 가운데서 절대적 형태에서는 불만족하여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그리고는 다른 것으로 응수하고, 결국에는 그 둘을 결합하여 더 나아진 다른 형태로 그 둘을 결합하여 더 나아진 다른 형태로 그 둘을 능가한다.
- 헤겔의 소외-물질이 절대정신에 이르지 못하는가의 문제
- 마르크스의 소외(alienation)

(1) 노동자의 소외

(2) 종교의 소외

cf. 라캉의 소외

- 노동-인격 전체의 표현, 창조, 다양성,
- 노동자가 불행하고 소외된 이유는 사유재산 때문이다
예)내가 그물을 짜는 것은 나의 독특한 재능을 표현하기보다는, 단지 상품을 만들어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기 때문이다. 노동이 상품 생산만을 할 뿐, 노동을 통한 인간다움의 창조가 없다.

3. 노동의 착취: 자본주의와 잉여가치

『자본 1867』

- 상품(commodity)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들어있는 노동의 양(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 사용가치, 교환가치
- 돈money, 자본capital
- 노동자는 거대한 양의 잉여가치surplus value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가치는 과소평가-착취
- 잉여가치는 순전히 노동자들이 일해서 날마다 창출해내는 더 큰 가치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생활비)를 빼고 남은 것이다.
- 자본가들은(생산수단의 소유자) 잉여가치를 걸어 자신의 이윤으로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노동자는 가난이 악화
- 투자의 문제, 낮은 가격으로 경쟁, 고용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값싼 대체 노동력
-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생산의 발전을 위한 모든 수단들은 생산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들로 바뀐다. 그 수단들은 노동자를 인간의 파편으로 절단하여,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그의 노동에 대해 남아 있던 매력마저도 파괴하여

지긋지긋한 노역으로 변하게 만든다. 그에게서 노동과정의 지적인 잠재력들을 소외시키고, 그가 노동하는 조건들을 왜곡시켜, 노동과정에서 그 비열함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횡포에 복종하도록 만들며, 그의 평생을 노동 시간으로 둔갑시킨다...〈자본3〉

4.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 하부구조base : 경제적 사실들이 사회생활의 기초를 형성했고, 그것들이 하부구조로서 노동의 분업, 계급투쟁, 인간 소외를 초래한다.
- 상부구조superstructure: 일상생활에서 분명 보이는 다른 활동의 영역-경제적 하부구조에서 생겨날 뿐 아니라, 하부구조에 의해서 뚜렷하게 형성된다.
- 문화적 제도, 가정, 정부, 예술, 철학, 윤리, 종교는 그 주된 역할이 강자와 약자 사이의 충돌에서 생기는 깊고 통렬한 긴장들을 봉쇄하거나 통제된 상태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들
- “지배계급의 생각이 어느 시대나 지배적 사상” 『독일이데올로기 1845』
- 중세, 농업, 토지, 봉건영주, 제후와 군대, 농노, →헌신, 순종, 경의 충성
- 예술에서도,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독자성과 독창성을 이야기하지만, 예술가들의 성공 역시 시대에 용납된 사상에 의존하며, 그들이 항의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억압자의 통제 아래 있는 사회에 대해 침묵으로 인정한다.
- 신흥 중산층의 자본주의→개신교(종교), 공리주의(철학), 램브란트의 초상화, 프랑스혁명,
- 정치와 종교라는 상부구조는 사실상 경제적 하부구조와 계급투쟁에 의해 지배됨
- 예술가들, 정치인들, 신학자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모두 ideology에 이르게 된다.

5. 종교비판

- 종교는 환상(pure religion), 가장 악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환상,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예, 억압자들이 좋아하는 신념체계를 제공,
- 종교는 경제(생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리 자체의 장점을 고려하는 것은 무의미
- 종교 교리는 사회생활의 상태로서, 어느 주어진 장소나 시대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적 세력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 신들의 관계도 계급투쟁의 부산물
- “나는 모든 신들을 증오한다.” 신들이 “인간의 자의식을 최고의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사논문 서문〉
- 포이에르바흐(Ludwig Feuerbach)
〈그리스도교의 본질 The Essence of Christianity, 1841〉

(1)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찬탄하는 인격의 특성들, 진리, 선, 미, 사랑, 견고함, 강인함 같은 인간성의 모든 극치를 인지하고서는, 이런 특성들을 그 소유자인 인간들로부터 빼앗아 천국의 스크린 위에 투사하여, 거기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에서부터 분리된 형태로, 하느님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라는 이름으로 숭배한다.

(2) 헤겔은 자유, 이성, 미덕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이 사실은 절대정신의 표현이라고, 즉 세계의 현실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감독처럼 운영한다는 절대정신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리성이나 자유는 우리 자신의 자연적인 인간의 삶의 특성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헤겔 철학은 모두 우리의 의식을 소외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헤겔 우파의 철학에 대한 비판 1843』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 종교에서 보는 소외는 실제로 우리의 보다 기본적인 불행의 표현일 뿐인데, 그 보다 더 기본적인 불행은 경제적인 것이다.
- 종교적인 고통은 현실적인[경제적인] 고통의 표현인 동시에 현실적 고통에 대한 항의이다. 종교는 억압받는 자의 한숨으로서,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생기(spirit) 없는 상황에서 생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 인민들의 환상적인 행복인 종교를 철폐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인민들의 현실적인 행복을 위해서다. 그(인민의 현실적 삶의) 조건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환상들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이런 비현실성, 환상적 세계로의 비약 때문에 종교가 사악하게 위로하는 비즈니스가 되었다.
- **행동, 실천**에 대한 강조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기만 했는데, 그러나 요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 역사 속에서 종교의 역할은 기존질서의 현상유지(status quo)에 대해 신적인 정당화를 제공해주었다. →변화와 혁명을 방해
- 사회의 상부구조에 속하는 때가되면, 종교는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강력한 운동을 정리하는 데 마르크스주의의 범주들과 분석들에 의존하고 있다.